

저축은행, '관료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주주총회

금융권 네트워크·경륜 등 경험
금융사 경영상 조언·지식 제공

일각선 금융당국 방패막이 우려

저축은행 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관계 고위직을 거친 유력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재선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권 등에서 요직을 거친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기업 경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JT천애·유진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 이사회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 이력을 가진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강임호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융업에 정통하면서 관련 네트워크 또한 풍부한 금융 전문가라는

<주요 저축은행 사외이사 주요 경력>

저축은행	사외이사	주요 경력
웰컴저축은행	강임호	·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現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T천애저축은행	이재호	· 前 재정경제부 서기관 · 前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이중호	· 前 한국은행 부국장 · 前 금융감독원 국장
유진저축은행	정희수	· 前 제17·18·19대 국회의원 · 前 기획재정부 위원장
	최종덕	· 前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사회기금과장 · 前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KB저축은행	윤승용	· 前 국방홍보원장 · 前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한국투자저축은행	한복환	· 前 금융감독원 검사국 팀장 · 前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평가다.

JT천애저축은행의 이재호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상임이사를 거쳤고, 이어 한화생명 사외이사과 나라신용정보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또 이중호 사외이사는 한국은행에서 부국장 등을 역임하며 23년간 재직 후,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준비단 법령기획팀장을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국장 등을 수행한 금융당국 인사다.

이어 유진저축은행의 정희수 사외이사는 지난 2005년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16년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3선을 지낸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위원장 역임했다. 또한 최종덕 사외이사는 기획예산처와 인천공항세관, 경제기획원을

거친 공무원 출신이다.

KB저축은행의 윤승용 사외이사는 국방홍보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눈에 띈다. 이후 노무현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활동하며 금융업권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를 쌓아 내부에서 회사의 내부 통제와 윤리·건전경영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경영활동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기에 최적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한복환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검사국 팀장을 거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은행 금융안정업무 지원 과견 활동 등을 수행하며 금융 당국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인물이다. 금융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이 가진 금융권 네트워크와 경륜 등이 금융사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인물은 금융 정책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췄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아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경영을 견제할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등 유력 기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논란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견제에 대한 방패막이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래전부터 금융사들은 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해 기업 입장에서 당국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단순히 전관예우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민간 전문가와 다르게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이나 관료계와 관련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소속 임직원과 가족 봉사단 100여명이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행복상자'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즈를 취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독립유공자·후손들에 '행복상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35인과 후손 20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행복상자'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상자'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브랜드 중 하나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다양한 물품을 정성껏 담았다.

이날 하나금융그룹 소속 임직원과 가족 봉사단 100여명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공원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 모여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행복상자'에 물품을 담고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

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10여명도 함께해 다른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며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곳에서 독립의 의미도 되새기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애매한 수수료·판매경로, 펀드명칭에 넣는다

금감원, 펀드핵심정보 즉시확인
개정 '기업공시서식' 10월 시행

앞으로 펀드명칭만으로 수수료나 판매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펀드명칭이 'A증권투자신탁(주식)C-Pe' 등 암호처럼 어려웠지만 '클래스 명칭: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한글명칭이 같이 기재된다.

이와 함께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0만원을 투자할 때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하며, 같은 유형의 펀드나 창구·온라인 간 비용을 비교해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 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간이투자설명서와 펀드클래스 명칭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명칭 만으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한다. 다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글로벌 관행을 고려해 대체가 아닌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표현함에 따라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3단계로 분류해 체계화했다.

1차 분류는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수수료선취(A) ▲수수료후취(B) ▲수수료미징구(C) ▲수수료선취후취(D)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2차 분류 기준은 펀드판매경로다. ▲온라인(e) ▲오프라인 ▲온라인슈퍼(S) ▲직판(J) 등이다.

1·2차 펀드 클래스에 추가되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나머지 모든 클래스를 3차로 분류했다. ▲보수채급(CDSC) ▲무권유저비용(G) ▲개인연금(P1) ▲퇴직연금(P2) ▲주택마련(H) ▲기관(F) ▲고액(I) ▲랩(W) 등이다.

예를 들어 'Ag'였던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이 부기된다. 'Ce-P1' 클래스 명칭에는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으로 알기 쉬워진다.

또 선취(A), 후취(B) 및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며, 투자자가 본인의 펀드 예상투자기간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제공

한다.

펀드비용은 실제 지불 비용과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투자할 때 1~10년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을 기재한다.

또 펀드 간 비용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업계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과 창구매수 및 온라인매수시 비용정보를 동시에 알려야 한다.

펀드핵심정보는 간이투자설명서 첫면에 집중 기재한다.

첫 면 기재사항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실적 등이다. 이 외에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위험 ▲매입·환매방법 ▲환매수수료 ▲과세정보 및 펀드 클래스별 펀드비용 부과방식 등 순으로 기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수익률, 투자비용 및 환매예상금액 등의 중요정보를 표준화해 매일 제공하고, 펀드, 보험, 연금 등 금융상품의 핵심정보(실질수익률 및 비용)를 비교공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금감원, 보이스피싱 차단 AI앱 시범운영

사기확률 80% 도달때 경고음·진동

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IBK기업은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AI 앱(App)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80% 등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음성 및 진동 알림을 제공한다.

우선 기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개선·보완

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AI 앱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확도 제고 등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앱은 통화 내용의 주요 키워드, 발화 패턴, 문맥 등을 파악, 피해사례와 비교 분석해 금융사기 여부를 인지하는 방식"이라며 "정부기관 사칭의 고전적 방식은 물론 대출사기 등 첨단화·교묘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 AI 앱이 활성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캄보디아 파이페이와 MOU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KB캄보디아은행 본점에서 캄보디아 파이페이(Pi Pay)와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이페이는 2017년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5만명의 사용자와 35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캄보디아 모바일 페이먼트 부문 최대 핀테크 업체다. 작년 말 이용금액이 1억5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중국의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는 등 캄보디아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결제를 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디지털 뱅킹 플랫폼인



(왼쪽 세번째부터) 토마스 포코니(Tomas Pokorny) 파이페이 최고경영자(CEO)와 최창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상무가 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KB캄보디아은행 본점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브 KB 캄보디아'는 이번 제휴를 통해 파이페이와 가맹점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주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